

의학 다이제스트

4~6cm 최소절개 심장수술

선천성 심장병환자를 수술로 치료할 때 가슴흉터를 최소화하는 방법이 도입됐다. 서울대병원 소아흉부외과 김용진교수팀은 최근 6개월간 선천성 심장병환자 77명을 수술하면서 가슴을 4~6cm만 절개하는 최소절개 수술법을 적용한 결과 통증이 적고 흉골이 빨리 아무는등 효과가 좋았다고 밝혔다.

김교수는 『종전에는 목 아래쪽에서 명치뼈까지 피부와 가슴뼈를 길게 절개해 상처가 컸고 아물 때 흉골이 뒤틀어지는 단점이 있었다』며 『최소절개술을 시행하면 노출이 심한 옷을 입어도 상처가 보이지 않고 비용도 100만 원가량 절감된다』고 말했다.

(02)760-2103